

전남교육청, 학교안정화·위기대응지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도내 Wee센터 위기학생 지원 업무담당자 등 50명 참석 최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호소하는 아이들 증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10일 호텔현대 바 이 라한 목포에서 도내 Wee센터 위기학생 지원 업무담당자와 임상심리사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정화 지원을 위한 '위기대응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 무기력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특히, 학생 자살 및 자살시도 등의 사안이 급증하

고 있다. 이처럼 위기사안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의 지원 요청도 많아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업무역량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학교 안정화 및 위기대응지원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업무담당자들에게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주기 위해 이번 연수의 자

리를 마련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는다. 이럴 때 매우 혼란스럽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도움을 받고 향후 위기상황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조영래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며, 학교 현장의 지원과 학생들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정화와 위기대응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수 대상자들의 참석 전 자가점검 키트 검

사, 수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김재환기자

영광공공도서관, '동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영광공공도서관은 지난 10일 영광 지역의 한길서림과 이음북스 등 2개 지역 서점과 '동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개 지역 서점과 업무 협약

'동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는 영광군민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협약된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3월 중에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4월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책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책을 대출할 수 있었다면, 이 동네 서점 바로대출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즉시 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순천대-전남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순천대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와 최근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대학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과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허강숙 센터장을 비롯하여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순천대 대학생 자원봉사 수요 자-공급자 연계 체계 구축 ▲대학생 자원봉사

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기여 ▲특화 전공 재능기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하여 기타 상호 발전이 필요한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전라남도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단 활동으로 평소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순

천대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고 센터와 동반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강숙 센터장은 "앞으로 순천대학교와 함께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동부권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자원봉사 문화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순천대는 지난해 교직원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대상 멘토링 활동이 우수 사회공헌 사례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받은바 있다.

순천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3월 말 출범하는 전라남도 10개 대학 대학생 연합봉사단에 동참하여 특성화된 재능기부 형식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해남동초, 방과후학교 36개 체험 주간 운영

해남동초등학교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방과후학교 체험주간'을 운영했다. 이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여러 부서를 참여해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이다. 동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문화·예술, 체육, 교과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평일 방과후프로그램 25개, 토요일방과후프로그램 11개가 학기 중에 운영되고 전교생 1,120명 중 818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7개가 운영 예정으로 연중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남동초 방과후학교는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공백 없이 방과후학교 체험 주간을 바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



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동취재본부

보성 학부모회 연합회, 학생 자가진단키트 소분 봉사활동

매주 목요일 7300개 키트 소분

보성교육지원청 보성 학부모회 연합회는 지난 3월초부터 학생 자가진단 활동을 위한 진단키트 소분 작업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소분 작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교육부의 주2회 학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등교 방침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학생 개인별로 지급 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세트를 만들고, 학교별로 분류하기 위한 작업으로 매주 목요일 7300개의 키트를 봉사활동으로 소분할 예정이다.

당초 학생 자가진단키트 소분 작업은 교육지원청 내 직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매주 7300개의 자가진단키트 소분 작업은 코로나19 대응을 학교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성 학부모회 연합회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봉사단 구성을 통하여 보성 학부모회 연합회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자가진단키트 소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 학부모는 "처음 해보는 소분 작업이라 어



렵고 힘들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교육을 위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 뿐이다."며 "코로나19도 힘을 모아 빨리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보성=김택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